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견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이하 법원본부)는 지난 2019. 8. 19. 공포·시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규칙 제2857호)」에 따라 설치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원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인사제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또는 법원구성원 일·가정양립 분과위원회)설치

- 본 규칙에서는 사법행정자문회의가 회부한 안건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는 것 외에 어떤 분과위원회를 설치할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최근 몇 년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아래 표 참조)이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8. 11. 21. '고 이승윤 판사의 장례에 즈음하여'라는 글에서도 밝혔듯이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키면서 행복하고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따라서 법원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원 충원을 통한 적정한 업무량 분담, 각종 복지정책 발굴 등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가정생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또는 법원구성원 일·가정양립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본부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법원구성원 사망 사고 건수

(2019. 9. 24. 기준)

년도	질병	자살	사고	합계
2015	10	3	2	15
2016	7	2		9
2017	6	2	1	9
2018	4		2	6
2019	8	4		12
합계	35 (68.6%)	11 (21.6%)	5 (9.8%)	51

○ 연구 내용

- 출산 및 육아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연구
 - 시차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등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연구
 - 임신 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 연구
- 고질적인 법관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한 방안 연구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을 통한 인원 증원 등
- 법과 제도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법원공무원 정원배정 기준 연구
- 타 공무원 수당 및 복지후생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법원구성원 수당제도 개선 연구
- 법원구성원 각종 복지정책 수립 및 선택적 복지제도 개선 연구
- 법원구성원 근무환경 개선방안 연구

○ 구성

- 법원본부장이 추천하는 법원공무원 5명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5명 +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위원 5명

2.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

- 규칙 제10조에서 판사의 보직에 관하여 사법행정자문회의 또는 의장이 회부하는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해 ‘법관인사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한 취지는 사법행정 기능이 인사행정 기능과 결합하여 권력화 또는 남용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인사운영의 밀행성, 인사기준의 비투명성 등으로 인한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함임.
-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도 인사행정의 권력화로 인한 사법행정 남용 위험을 차단하고, 인사운영의 밀행성, 불공정성 등으로 인한 인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업무 실현과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구조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법원본부가 추천하는 위원들과 법원행정처 업무 관련 담당자들이 노사 동수로 참여하여 항시적으로 연구하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함.
- 연구 내용
 -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공정하고 충실한 법원업무 실현을 위한 법원공무원 직급구조 개편 방안 연구
 - 법원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기타 법원공무원 관련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구성
 - 법원본부장이 추천하는 법원공무원 5명 +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법원구성원 5명